

전남

농촌마을 가꾸기 우수 '강진 청자골 달마지마을'

아기자기한 농촌체험 즐거움 널렸네

감따고 떡메치고 분재공원 구경 등 다채

'차향기나는 달마지 마을 그곳에 가고 싶다'

최근 전남 도시 유원지보다 고향의 흔과 인상을 느끼고 농촌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 도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수산공사 주관의 '제8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강진군 선진면 '청자골 달마지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월출산 자락인 월각산 아래 자리한 달마지 마을은 지난 2004년 관내에서 가장 먼저 농촌관광을 시작해 넉넉한 인심과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에게 즐겨

움을 준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도 도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가 돌고 있다.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민박이나 체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콩과 잡곡, 참쌀, 계피마늘 오이, 표고버섯, 마을노인들이 만든 벗짚 공예품 등을 구매해 간다. 방문객은 연간 2만명, 이에 따른 소득역시 민박4천만원, 농수산물 판매 4천200만원, 체험비 2천500만원 등 1억여원을 웃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요즘 마을에서 가장 먼저 농촌관광을 시작해 넉넉한 인심과 다양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에게 즐겨

정해진 만큼 따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밖에 감따기, 인절미 떡메치기, 고추따기를 비롯해 마을 새송이버섯 농장에서 버섯을 수확한 후 집으로 가져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또한 재래식 콩나물을 키워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플라스틱 통에 양겨를 태운 재와 불린 콩을 층층이 쌓아 만들어보는 재래식 콩나물체험은 3~4일 후 직접 기른 무공해 콩나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 높은 체험이다.

농사체험과 함께 농촌마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체험도 인기다. 청자골 달마지마을의 자랑인 전통 한옥을 둘러보고 갖가지 나무들이 본채처럼 모양을 갖추고 있는 분재공원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월각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매일 3회 포효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것도 이곳만의 이색적인 체험거리다.

달마지마을에서는 민박(팜스테이)도 가능하다. 현재 12개 농가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단체이용 시설로 40인용 20인용 대형 숙박이 가능하고, 3~4인 기준 방 1하 나에 3만원이면 농촌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포근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

조형원 녹화농촌마을을 위원은 "전통체험마을로 변하며 마을 발전에 주민들이 적극적"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 한우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2단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061-432-3535)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송아지 경진대회 "우리가 최고"

화순축협(조합장 송태평)은 우수형질의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18일 화순을 다지리 가축시장에서 '제4회 자연숙육 한우 송아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강동원(왼쪽)씨가 수소 최우수상, 박영선씨가 암소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나명주기자 mjna@

보리 가공산업 활성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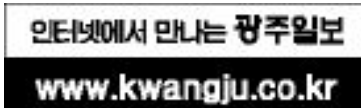
영광군 국회사 심포지엄

2012년 정부 보리수매 폐지에 대비해 보리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최근 국화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엔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식량과와 영광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장기오 영광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보리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BT·I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와 접목함으로써 향후 보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보리는 유류농지 활용과 농가소득향상, 축산과 상생발전, 아름다운 경관조성, 식문화 기업유치 등 1석 5조의 작물"이라며 "영광군을 보리산업 특구로 만들어 보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조성익기자 ischo@



해남군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 '시동'

지역특화사업 선정... 3년간 사업비 6억 지원 받아

해남군이 따뜻한 기온과 양질의 황토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 사업공모 결과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이 '2010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계획한 특품화 사업은 가을감자를 바깥에서 월동시켜 1~2월에 햇감자로 출하시해 특색시장을 공략해나가는 것으로, 따뜻한 해남 기후와 황토가 많은 지역 여건을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주경간장 250m, 높이 26.5m, 2공구 교량은 주경간장 600m, 높이 70m 규모의 양복 2차로로 계획돼 향후 늘어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새천년대교를 양복 4차로 교량으로 건설해 줄 것을 권유해 요청해 왔으나 인산지막도로 관리처가 사업비가 2백 이상 늘어나는 4차로 확장보다는 가변3차로를 선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시작된 실시설계가 내년 6월 마무리되면 내년 7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권일기자 cki@

안 압해 송공~암태 신석간 국도 2호 선을 연결하는 새천년대교는 총연장 10.8km로 이중 교량구간이 7.26km이다. 2개 공구로 나눠 시공되는 교량구간은 애초 양복 2차로로 구상했으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가변 3차로로 변경됐다.

새천년대교는 당초 1공구의 경우

신안 압해 송공~암태 신석간 '새천년대교' 가변 3차로로 확장

서남권 섬지역을 연결하는 관문교량인 '새천년대교'가 양복 2차로에서 가변 3차로로 확장을 건설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천년대교 사업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난달 22일 선정됨에 따라 교량 폭을 가변 3차로로 건설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5천991억원이 투입돼 신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행정구역, etc. Lists administrative data for various counties and cities in Jeonnam.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행정구역, etc. Lists administrative data for various counties and cities in Jeonnam.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행정구역, etc. Lists administrative data for various counties and cities in Jeonnam.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행정구역, etc. Lists administrative data for various counties and cities in Jeonnam.